

오늘 스탠딩 TV토론... 후보 역량 드러난다

자료 없이 필기구만 갖고 시작

9분짜리 난상토론도 펼쳐져

19일 2차 대선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각 당 선대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차 TV 토론 결과가 여론의 흐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차 TV 토론은 공식선거운동 초반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의 토론 준비단은 두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자체적인 리허설을 갖는가 하면 각종 예상 질문들을 준비하는 등 막판까지 점검에 점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위 주최 토론회와는 별도로 KBS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스탠딩 토론’ 형식인 데다 별도의 자료 없이 메모지와 필기구만 갖고 토론을 해야 해서 더 각별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30초씩 인사말을 하고 나면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 공통질문에 1분간 답변한 후 바로 9분짜리 난상토론으로 들어가는 이번 토론회는 그만큼 후보의 역량이 고스란히 성적표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토

■문재인

안정·준비된 후보 각인

■안철수

감성 보완...콘텐츠 전달

■홍준표

자유토론 직설화법 자신

■유승민

대중에 인지도 넓힐 기회

■심상정

상대후보 능력·리더십 추궁

론에서 나올 법한 현안과 공약을 충정리한 다음 세부 전략을 논의 중이다. 문 후보 측에서는 1차 토론에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2차 TV 토론에서 더욱 안정적인 모습과 준비된 후보임을 각인시켜 대세론 형성의 계기를 삼는다는 방침이다.

공통선대위원장이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첫 TV토론에서 점

■대선후보 TV 토론회 일정표

일정	주관
19일	KBS 토론회
21일	JTBC 토론회
23일(정치분야)	중앙선거방송토론회
28일(경제분야)	“
5월 2일(사회분야)	“

수를 못 탄 후보 측이 거세게 달려들 것”이라며 “이를 여유 있게 방어하고 준비된 정책적 능력을 보여 비교우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공약 이해도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열린’ 형태로 벌어지는 토론회에서 거칠게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정치부심하고 있다. 1차 TV토론 때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는 표정이 전달되면서 후보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단 목소리 톤과 표정 등 감성적·비언어적 부분을 보완해 풍부한 콘텐츠가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 측은 토론자들 사이에 ‘말 끊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토론 방식도 큰 변

수라 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다. 토론준비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이용호 TV토론단장과 종편에서 활동했던 민영삼 언론담당 특보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안 후보는 유세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서도 짬짬이 리허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첫 TV토론 후 수차례의 평가회의를 열고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홍 후보가 현안 관련 즉문즉답에 능했기 때문에 미리 질문과 답변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형식 토론에 자신 있다는 반응이다. 대선기획단 TV토론팀 관계자는 “홍 후보가 직설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힘도 크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TV토론이 아직 지지율이 낮은 유 후보를 대중에게 알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 후보가 논리정연하고 현안을 워낙 잘 꿰뚫고 있어 대본을 외우거나 ‘버러치기’를 필요가 없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측은 이번 TV토론에서 세부적인 정책 내용보다는 상대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과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토론자들 사이에 ‘말 끊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토론 방식도 큰 변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비용 錢의 전쟁... 당세따라 ‘부익부 빈익빈’

文 펀드·安 개인 후원금 총당
洪, 당 자금·대출로 실탄 마련
劉, 당세·지지율 미약 이중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후보들의 ‘전(錢)의 전쟁’이 불붙었다.

대선에서는 조직 운영과 광고·홍보, 유세 차량 등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력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그러나 후보와 당마다 사정이 달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대선에 들어갈 비용을 470억원 내외로 잡고 선거자금을 마련 중이다. 당비와 국고지원금, 은행융자 외에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통해 선거자금을 총당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5년 전 대선에서 300억원을 모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법정한도(509억원)에 가까운 500억가량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보조금 120억원에 시·도당을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130억원까지 더하면 총 500억원에 달한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유세 차량·홍보 포스터 등 법정선거비용에 200억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조직과 자금 면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 자금 운용이 수월한 편이다. 안 후보 측은 대선 비용을 440~450억원 선으로 잡았다. 자금 총당은 86억원의 국고보조금에 후보 개인 후원금을 더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과

같은 대선펀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신생정당인 데다 지지율이 높지 않아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국고보조금 63억원과 후원금, 그리고 후보 개인 재산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나 총예산은 100

억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민주당(119석) 123억5000여만원, 한국당(93석) 119억8000여만원, 국민의당(39석) 86억6000여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4000여만원, 정의당(6석) 27억5000여만원, 새누리당(1석) 3200여만원 등 선거보조금 421억40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원, 화순시장서 지지호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8일 오전 화순읍 전통시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안철수 당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文·安 호남서 지지선언 봇물

변호사 119명 文 지지...대학교수 232명·노동단체 安 지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지선언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지지선언이 잇따르는 등 지지세력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7개 대학 소속 232명의 교수는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안 후보 지지선언 교수 대표인 전덕영 전남대 교수 등 6명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 건설 책임자는 안철수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통합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당 대통령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다”며 “모든 유권자에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 지지선언 교수들은 다음 주 2차 선언을 통해 더 많은 교수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노동단체에서도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19명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 변호사 대표 11명은 이날 광주시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구원하기 위해 법률가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춥붙심을 받들고 올바른 정파정신을 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책임자는 문 후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세월호 진상규명과 5·18 발포 항쟁책임자를 찾는 데 후보가 약속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文·洪·劉 ‘안 때리기’ 총공세

최근 보름여 동안 지지율이 급등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겨냥한 다른 당 후보들의 공격이 거세다. 마치 힘을 모아 ‘안철수 때리기’에 나선 모양이지만 노림수는 제각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후보와 호남의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안 후보를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규정, 안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정권연장’과 다름없다면서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20석 정당 대 40석 정당’, ‘준비된 후보 대 불안한 후보’의 프레임으로 안 후보에게 공세를 퍼고 있다.

유 후보도 전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한 대선 출정식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호남의 지역 기반으로 후보가 된 다음에 안보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퍼고 있다. 특히 범보수 후보 중 지지율 1위인 홍 후보 측이 안 후보에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홍 후보와 한국당은 ‘문재인 거부 정치’가 강한 보수 진영에서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 안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 공세에 지나치게 화력을 쏟아부을 경우, 문 후보 지지율을 올려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 홍 후보 측의 고민이다.

유 후보도 전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한 대선 출정식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호남의 지역 기반으로 후보가 된 다음에 안보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소’ 박근혜, 한국당 당원권 정지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원권이 지난 17일 검찰 기소로 정지됐다고 한국당이 18일 밝혔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한국당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당 이철우 사무총장도 이날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은 바로 정지된다”고 확인하면서 윤리위원회 개최 등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출범시키면서 ‘1호 당원’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당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당원권 정지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